

푸틴, “Gas OPEC 설립 검토” 파문

이란 · 알제리와 연대하면 50% 점유 ... 유럽 압박용 제스처 가능성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1일 가스 생산국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식의 카르텔을 구축하는데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발언은 이란의 정신적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월28일 테헤란을 방문한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안보위원장에게 <GAS OPEC>을 만들자고 제의한데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관리들과 세계 최대 천연가스회사인 러시아 Gazprom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Gas OPEC 창설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푸틴이 국정연설에서 검토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푸틴은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다른 가스 생산국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가스 OPEC이 설립된다고 해도 “가격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2006년과 2007년 초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와 가스가격 마찰을 빚는 바람에 유럽이 한때 심각한 가스 공급난을 겪은 후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이란은 세계 1-2위의 가스 매장·생산국이며 알제리를 포함하면 전세계 가스 공급의 50%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이밖에 노르웨이, 리비아 및 이라크도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이다.

블룸버그는 Gas OPEC이 결성되면 모로코와 베네수엘라도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란이 러시아에 Gas OPEC 설립을 제안한 후 푸틴의 검토 발언이 나왔음을 주목하면서 이란 의회 쪽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킬 수 있음이 언급된 점을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의회 에너지위원회 소속인 하산 모라디는 1월31일 “러시아가 끝내 불참하면 알제리와 모로코 및 베네수엘라와 함께 Gas OPEC을 결성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as OPEC 설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Gazprom의 알렉산데르 메드베데프 부회장은 앞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Gas OPEC에 대해 질문받자 “불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다.

AFP는 Gas OPEC 창설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라면서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일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가스 거래가 원유와는 달리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Gas OPEC 설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고, Gas OPEC 후보국들의 <이질성>이 OPEC 회원국들보다 더 큰 점도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푸틴의 발언은 Gas OPEC 설립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보다는 유럽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AFP는 Gas OPEC이 설립되면 OPEC보다 시장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면서 푸틴 발언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2>